

법헌 스님의
만다라&수행

문수사리보살



묘길상(妙吉祥)은 문수사리동자, 문수사리법왕자라 칭하기도 한다. 본존은 중대팔엽원의 4보살의 한 분으로서, 문수원의 주존(主尊)이며, 동진이라 할 때는 어린이가 자아에 대한 집착이 없는 것처럼 이보살의 지혜가 명료하여 걸림이 없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대승불교에서는 석가모니부처님의 좌 협시보살로 푸른 사자를 타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하지만 반야부 경전에는 밀접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밀교에서는 대일여래의 내증(內證)의 덕(德)을 나타내고, 밀호를 길상금강, 반야금강 등이며, 〈대일경〉에서는 시원금강동자라 하고, 〈이취경〉에서는 일체무희론여래라는 이름으로 등장한다. 또는 진언의 숫자에 따라 일자문수, 오자문수, 육자문수, 팔자문수 등으로 표현하고, 상투의 숫자에 따라서 일계문수, 오계문수 등으로 나타내며, 또는 각부에 따라서 불부에는 팔자문수, 연화부에는 육자문수, 금강부에는 오자문수, 단순히 문수라 할 때는 오자문수를 말한다. 본원에 안치된 문수는 동자의 모습으로 다섯 개의 상투가 있다.

형상 - 황금색, 머리에는 오계(五髻, 5개의 상투)를 결하고, 동자(童子)형을 하고 있으며, 오른손은 여원인(與願印)을 하고, 왼손에는 삼고저를 얹은 자루인 청연화를 들고 백 연화대좌에 가부좌를 하고 있다.

〈동방불교대학 실담학 교수〉



보리수아래의
부처님 품안에서

⑬ 지체장애인 이순애 씨

끊임없는 도전으로 삶 개척한 멋쟁이

장애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일상에서 여성이란 단어에, 장애라는 편견의 방점을 하나 더 크게 찍으며 직업, 결혼, 양육 등이 중증 장애에 이중삼중의 어려움으로 부가되기도 한다. 그런 가운데도 그녀들은 각기 자기만의 방법으로 어려운 환경을 견디며 긍정적인 삶을 이뤄가고 있다.

60 중반을 넘어선 지체장애인 이순애 씨의 삶에도 장애 여성으로 살아온 치열함이 그대로 묻어난다. 그녀의 집 근처 푸른 수목원에서 그녀를 만났다. 삶에 대한 소신과 꿈을 갖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사는 자유로운 영혼이자 두 딸의 엄마이기도 하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여행을 자주 다니는 그녀는 오늘도 만나자마자 고향인 부산으로 다녀온 1박 2일 여행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주었다. 다대포에서 보고 싶었던 바다를 보고, 부산에서 자랐지만 난생 처음 범어사에도 갔었단다. 부전시장에 들러 어릴 적 먹었던 특산물로 장을 보아, 딸들을 위한 여행선물로 엄마의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한 끼 밥상을 가져왔다고도 했다.

그녀는 장애여성으로 살면서 '장애인은 잘살면 안 되나' 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많이 했다고 하였다.

서른 즈음 집에서 독립해 서울생활을 시작했다. 시장거리에서 잡화를 파는 노점 등을 하면서 혼자 살 때, "내게 조건부라도 집을 주고 경제적으로 조금만 도와준다면 경제적 기반을 잡는 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하는 생각도 하면서 열심히 살았다. 서른 살부터 마흔 살 결혼 전까지 열 번의 이사를 했다고 하였다.

그녀에게 "매우 힘들었겠다"고 묻자, 힘이 들었다기보다 이사를 하면서 사는 "재미가 났었다"고 했다. 이사를 결정하고 나면 한 단계 더 발돋움한 삶과 새로운 세계로의 희망에 신이 났고 이사짐 정리를 하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주변 정리를 할 수 있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보낸 10년은 몸과 마음이 지치기도 했지만 살만 했단다.

마흔 살에 친구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다고 한다. 결혼하고 난 후 처음에는 양육에 어려움이 클 것 같아 아이 없이 남편과 둘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었으나 첫 아이를 낳고 조카를 키운 경험으로 주위에서 부러워할 만큼 잘 키웠다. 둘째도 낳아 잘 키웠다. 그러나 장애인 부부에다 나이도 많고, 경제적 여건도 열악하니 아이를 키우는 것도 만만치가 않았다.

아이만 키우다 보니, 어느 날 못한 공부 생각이 났다. 살기에 바쁘고 아이를 키우고 사는 동안 자신을 잊고 사는 것 같아 고등학교 과정 공부를 하고 현재는 방송통신대에서 대학 과정을 공부하다 휴학 중이다.

그녀에게 열심히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경제적으로 조금 더 윤택한 환경에서 살았다면 그녀의 열정과 꿈이 더 크게 실현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일어났다.

독서지도사, 글쓰기, 그림그리기 등 하고 싶은 일은 매번 도전했다는 그녀는 우리에게도 가고 싶으면 가 보는 것, 좋아하는 것은 할 권리와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무엇을 하든지 지향하는 바가 있는데 나이 70세를 앞두고 있다 보니 '나이듦' 이 장애보다 더 큰 걸림이 되어 다가왔다고 한다.

그녀는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두 딸에게도 꿈과 열정을 가지고 항상 움직여야 함을 가르쳐주고 싶어 했다. 그녀에게 지금의 삶이 곧 바른길을 가는 목표요 치열한 수행의 과정이라 여겨졌다.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부산 여행이야기를 다시 물었다. 난생처음 가 본 범어사에서의 일화를 들려주었다.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범어사에 도착하여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고 경내를 한 바퀴 둘러보았단다. 다음 일정이 빠듯하여 범종각 옆에서 빵과 커피로 점심을 대신하고 있는데 보살님 한 분이 다가와 "목마르지 않으세요? 집에서 우려온 차가 있는데 드릴까요?"라고 물어보더란 것이다. 그 친절함에 마다하지 않고 고맙게 차를 받아 마시면서 그 순간이 참 행복했단다. 스쳐 갈 인연이라도 낯선 곳에서의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은 그녀에게 기분 좋은 경험이었다.

그녀는 "사찰에도 기본적인 편의시설은 갖춰져 있고 불자들의 인식도 좋아졌다"며 "앞으로 좀 더 세밀한 부분의 편의시설도 고쳐나가도록 애써달라"는 작은 바람을 남겼다. 그리고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희망이 있고 없고는 마음먹기에 달렸다"며 크게 웃었다. 자신의 꿈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성실함으로 살아온 그녀야말로 정말 멋있는 삶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진심을 담아 '엄지척' 해주고 싶은 마음이다.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



삶에 대한 소신과 꿈을 갖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사는 지체장애인 이순애 씨.

人生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 답이 法華經에 있다!

NAVER 법화경전문강설 검색 하세요.

킹스대학교 前명예총장 崔光永研究室